

금당 자리엔 민가 / 안전 무시한 공사까지

무관심에 망가지는 '폐사지'

2천~3천여곳 추정,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관광자원으로 인식 '무분별 개발' 위험 노출

조계종과 박근해 한나라당 대표가 9월 폐사지보존 법안 국회상정을 추진한다는 본지보도가 나간 이후 폐사지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 539호 1면 참조)

폐사지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폐사지보존 법안이 상정되기 이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반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폐사지는 불교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전국 2천~3천여 개의 폐사지 가운데 1960년대 이후 100여 곳만이 발굴됐으며, 사적 또는 시·도기념물로 지정 보호받은 곳은 100여 곳에 불과한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

폐사지에 대한 무관심은 폐사지에 관한 변변한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는 데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전국에 폐사지가 몇 개나 되고, 어디에 있는지도조차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폐사지와 관련한 유일한 통계 자료는 조계종 총무원이 1997년부터 3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불교사원지>뿐이다. 그나마도 문헌에 의지한 자료로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물며 폐허가 된 절

터의 유래와 역사 규명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경남지역 최대 사찰 가운데 하나였던 산청 단속사지에는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단속사지동 3층 석탑 등 두 기의 석탑(제72·73호)이 남아 있다. 하지만 석탑과 더불어 사찰의 중심을 이뤘을 금당 자리에는 민가가 들어서 있다.

서울 종로구 신영동 세검정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 중인 인도 확장공사는 폐사지에 대한 방대의 극치를 보여준다.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데, 보물인 당간지주 옆의 LPG 가스통과 산소용접용 가스통이 위태롭다. 게다가 당간지주 보호난간 옆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폐사지 보존은커녕 보물로 지정된 당간지주 안전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치 못지않게 폐사지를 망치는 것은 그릇된 '관심'이다. 관광객이 개발에 목마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폐사지는 관광자원으로 인식된다. 경북공룡에 있는 지광국사 현모탑(국보 제101호) 반환을 주장하고 있는 원주시가 지광국사현모탑을 중심으로 법천사지와 거문사지(사적 제168호)를 묶어 관광지 개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서산시 또한 보원사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최근 복원 방침이 발표된 경주 황룡사지 또한 안심할 수 없다.

이처럼 문화재적 가치가 적은 곳이면 방치되고, 유물이 좀 있고 볼 것이 있는 곳은 관광자원으로 개발되는 것이 폐사지에 오늘에 처한 현실이다. 폐사지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불교계가 나서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폐사지에 대한 무관심과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폐사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폐사지에 대한



산청 단속사지. 탑 뒤엔 금당터로 추정되는 곳에 민가가 위치해 있다.



보물로 지정된 당간지주 옆에서 벌어지는 공사임에도 안전조치가 미흡하다. 사진제공-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로 정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최근 복원 방침이 발표된 경주 황룡사지 또한 안심할 수 없다.

이처럼 문화재적 가치가 적은 곳이면 방치되고, 유물이 좀 있고 볼 것이 있는 곳은 관광자원으로 개발되는 것이 폐사지에 오늘에 처한 현실이다. 폐사지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불교계가 나서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폐사지에 대한 무관심과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폐사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폐사지에 대한

경찰불교회 제2도약 나선다

3기 중앙집행부 임명... 회원확대에 박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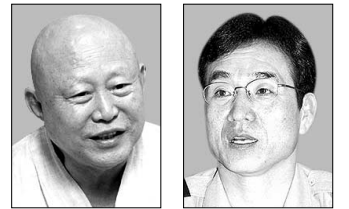
대한민국경찰불교회가 제3기 중앙집행부 인선을 최종 마무리하고 제2도약에 나선다.

한진호 경찰불교회장(경찰청 정보국장·치안감)은 최근 임승택 수석부회장(경찰청 불교회장)을 비롯해 부회장과 문영찬 사무국장(서울지방경찰청 감사관·경위)과 각 분과위원장을 선임, 9월 3일 오전 11시 경찰청 법당에서 임명식을 개최한다. 이날 임명식에는 지도법사로 추대된 조계종 원로의원 천은 스님이 참석해 법문한다.

경찰불교회는 앞으로 130여 산하단체와 경찰불자들의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지방경찰청 불교회를 중심으로 불교회가 없는 경찰서의 경찰불심도 모아

나간다. 특히 지방경찰청 가운데 유일하게 불교회가 없는 전북지방경찰청의 불교회 창립을 이뤄낼 계획이다. 또 회원 확대와 경승 스님들과의 협력관계 구축도 중점목표다. 활동이 없는 경승을 해촉하고 경찰포교에 관심이 있는 스님들을 경승으로 위촉함으로써 회원 확대와 역량 강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번 3기 집행부는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개편한 분과위 체제를 적용한 첫 중앙집행부 구성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번 인선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집행부를 꾸렸던 2기 때와 달리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할 분과위원장을 각 지역에서 고루 선발한 점이 돋보인다. 130여 산하경찰불자회를 아우르는 전국조직으



지도법사 천은스님 한진호 회장

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내비치는 대목이다.

여기에 2기 집행부를 맡았던 일부 임원을 빼면 이을수, 이만열, 심태섭, 최인현, 서주민 위원장 등 상당수 새로운 얼굴도 등장했다.

한진호 경찰불교회장은 "각 지역의 일꾼들을 고루 포진시킨 3기 집행부 중심으로 경찰불자와 경승, 중앙과 지역이 함께 어우러진 실행 단체로 거듭나 제2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박봉영기자

"쌓인 피로 산사에서 풀었어요"

스리랑카노동자 월정사 등서 불교문화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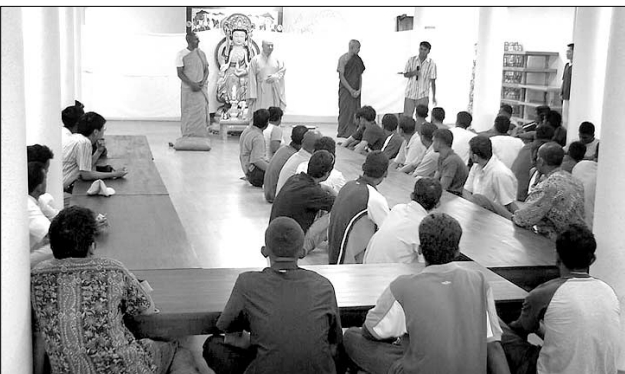
"불교문화도 접하고 해수욕도 하니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일 하고 있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모처럼 활짝 웃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정남)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진)이 주최한 '나눔의 기쁨으로 함께 하는 스리랑카 노동자 템플스테이'가 8월 14~15일 양일간 진행됐다.

안산 마하보디사 주지 와치사라 스님을 비롯한 스리랑카 노동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첫날 월정사에서 천나 무 숲길을 걷는 것으로 시작해 인근 추암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겼으며, 둘째 날에서는 새벽예불과 발우공양 등을 하며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와치사라 스님은 "불교문화의 문화를 체험해보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국민들이 서로의 불교문화를 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사참가자인 자마카(30)씨도 "모처럼만에 즐거운 휴식 시간을 보낸 것 같다"며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친구들과 동참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철주 기자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를 위해 월정사 주지 원명 스님의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문화 흔적 발견 감동"

파라미타 5박6일 기행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청소년자율탐사단'이 5박 6일간 일본 오사카, 나라, 교토를 탐방하는 '일본 속의 한국문화탐방'을 마치고 8월 11일 돌아왔다.

8월 6~8월 11일 열린 '일본 속의 한국문화탐방'은 2005년 서울특별시 청소년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파라

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 주관 행사다. 45명의 '청소년자율탐사단'은 교토 다이가꾸지(大覺寺)에서 첫날 템플스테이를 한 뒤 히가시야마 5종탑, 호류지의 당장벽화, 왕인박사묘와 백제왕신사 등 한국문화유산을 탐사했다. 일본 선(禪), 일본식 다도, 일본의 서예 등도 체험했다. 탐방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은 다시 가보고 싶은 인상 깊은 곳으로 다이가꾸지를 들었고, 일본 속에서 발견한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코류지의 미륵반가사유상을 꼽았다. 이은비 기자

'심·법·범·처 수행' 선우논강

조계종 선우도량공공대표 철우·현각은 8월 29일 지리산 실상사에 제12회 선우논강을 개최한다.

선우도량은 이번 논강을 통해 <대념처경(大念處經)>에서 말하는 '심·법·범·처(心·法·戒·處, 마음과 그 부수물에 대한 마음챙김)' '법·범·처(法·戒·處, 법 또는 마음의 대상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이 간화선의 화두 참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찾는다. (063)636-3031 조용수 기자

청교련 갯벌생태체험

대한불교청교련연합회(회장 현성·이하 청교련)는 8월 19일 제부도 갯벌체험장에서 '2005년 청소년자원봉사한마당' 제2차 '장애·비장애 청소년들과 함께 떠나는 갯벌생태체험'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정신지장애인 30여명과 청소년자원봉사자 50여명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청소년들은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계기가 됐다. 이은비 기자

불기 2549년 대한불교대승종 종도수련대법회

존경하는 대승종도 여러분
귀의 삼보하옵고,
종단의 위상과 종도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종헌종법의 교육원법 제1조, 연수원법 제2조, 승니법 제23조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련대법회를 개최하오니 수회 동참하시어 법좌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일 시 : 불기 2549년 8월 29일(월) - 31일(수)
- ◆ 입소등록 : 불기 2549년 8월 29일(수) 오후 2시
- ◆ 입 소 식 : 불기 2549년 8월 29일(수) 오후 3시
- ◆ 준 비 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요령, 필기구, 세면도구
- ◆ 장 소 : 다보수련원 043)833-7789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승리 392-10)
- ◆ 접수 및 안내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051)638-4088 / 총무부장 010-3136-4115
- ◆ 후 원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중앙종의회·각 지방 총무원·전국신도회

원로위원장 법청 청광 총무원장 법천 청화

총회 의 장	법 호 서 호	서울교구총무원장	혜 심
총회부의 장	법 서 청 원	경기교구총무원장	법 신
감찰 원 장	법 상 심 곡	강원교구총무원장	탄 오
고시 원 장	법 성 정 산	충청교구총무원장	혜 능
교육 원 장	법 진 도 일	전남북교구총무원장	법 현
기획 실 장	법 응 정 관	경남교구총무원장	법 인
총 무 부 장	법 암 지 법	경북교구총무원장	혜 암
교육 부 장	법 창 덕 문	부산교구총무원장	청 운
문화 부 장	법 명 보 현		
복지 부 장	법 연 덕 운		